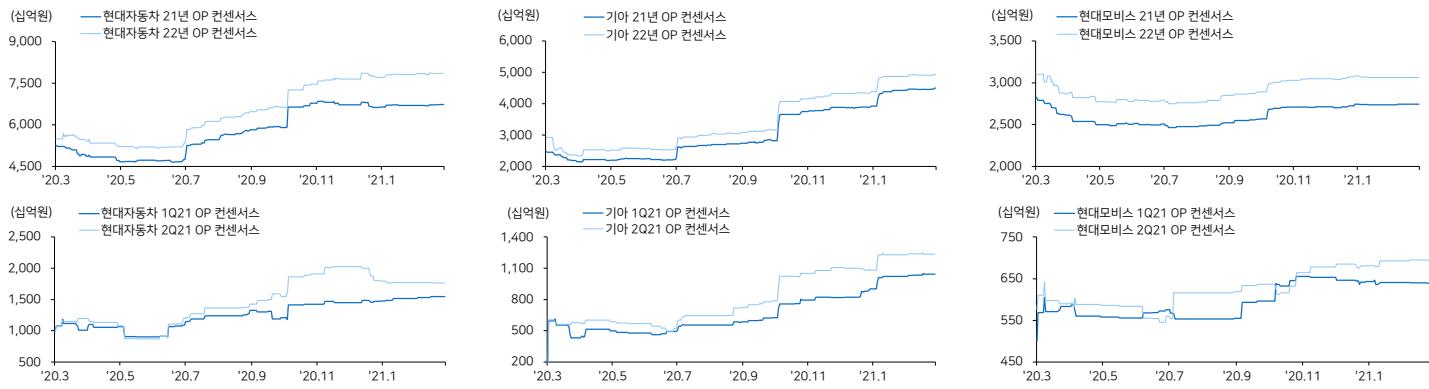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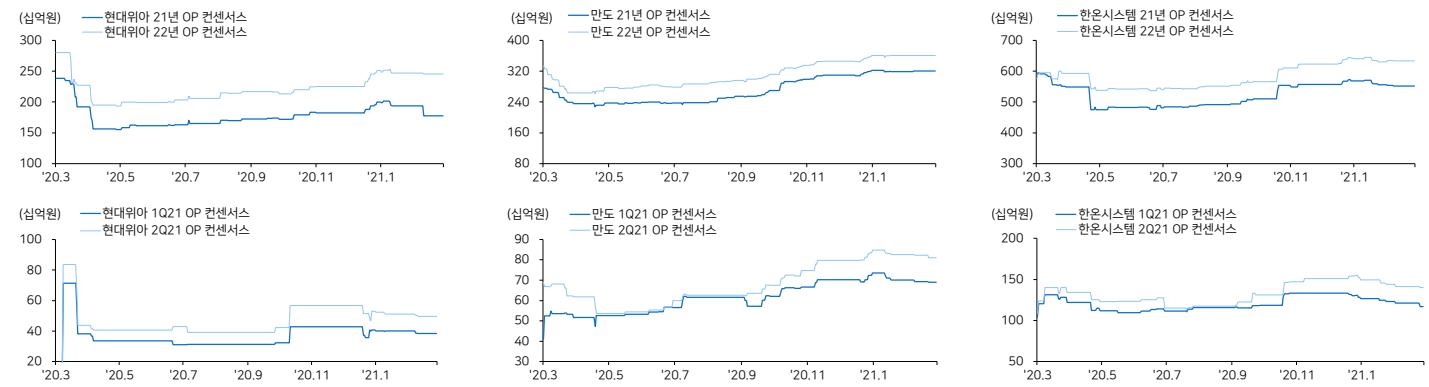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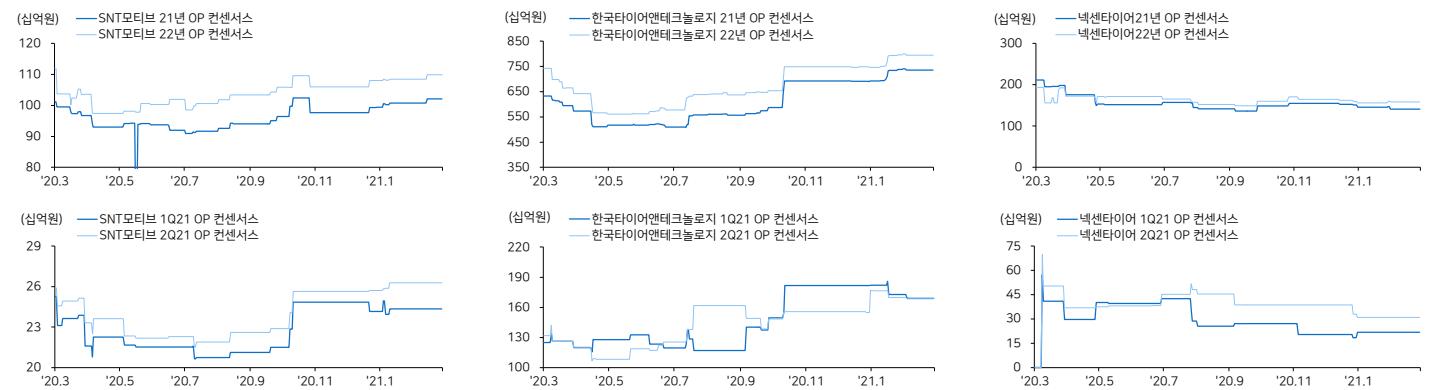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전기·수소·로봇 브랜드 쌓는 정의선, 글로벌 미래차 선두로 달린다 (e대한경제)

현대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 'HTOW', 초고속 충전 'E-Pit', 모셔널의 자율주행,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등 전기차, 수소차, 로보틱스 사업 등 초기시장을 형성 중인 미래차 분야에 진출하여 글로벌 미래차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.
<https://bit.ly/3ry5EKb>

Boston Dynamics unveils: a new robot to move boxes in warehouses (The Verge)

The company has increasingly focused attention on the logistics space, and today is unveiling a new robot, Stretch, moving boxes in warehouses. Stretch can shift up to 800 boxes an hour, comparable to a human.
<https://bit.ly/39t9xKG>

배터리 교환형 '전기차 시도하는 中...低개발국 시장 선점 의도?' (아시아경제)

중국 자동차 업계가 '배터리 교환형' 전기차(EV) 사업화를 꾸준히 시도하는 중. 일각에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 방식을 통해 저(저)개발국 등 시장에서 룰 인(Lock in) 효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란 관측이 제시됨.
<https://bit.ly/31tiNwE>

폭스바겐, 새로운 전기차 '트리니티 프로젝트' 신규 이미지 공개 (지피코리아)

해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최근 링크드인에 새로운 차량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룹 디자이너들이 '샤오펑(Xpeng) · 루시드(Lucid) · 니오(Nio)' 등 공격적인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 대비 어떤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 언급함.
<https://bit.ly/3szPR47>

매일 1000대씩 팔리는 'K8'. 전기차 이어 세단도 새역사 (머니투데이)

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'K8'은 사전계약을 시작한지 일주일 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2만3,000대를 넘게 판매할. 2019년 11월 출시한 3세대 K5 모델이 보유하고 있던 브랜드 세단 역대 최다기록(7,003대)을 무려 1만1,012대 초과한 것.
<https://bit.ly/31xbMlh>

LG전자와 손잡은 마그나 CEO "애플카 준비돼 있다" (서울경제)

LG전자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(CEO)가 "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"고 공식 언급함. 마그나가 애플카와 관련해 적극 생산 의지를 피력한 것은 최초.
<https://bit.ly/2PPW8HQ>

폭스콘 '내년 전기버스, 내후년 전기차 양산' (ZDNet Korea)

폭스콘의 전기차 플랫폼 'MIH 연맹'은 내년 전기버스(E-bus)를, 내후년 C급 전기차(Model-C)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. MIH는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이며, 폭스콘은 향후 기존 글로벌 전기버스 시장을 장악한 비아디 등과 경쟁할 전망.
<https://bit.ly/3u3lOHj>

Tesla's new patent shows path to Elon Musk's pure vision FSD approach (Teslarati)

Tesla received a new patent for "estimating object properties using visual image data. It describes an invention using two neural networks to gauge the distances of objects using only image data."
<https://bit.ly/39rNHqJ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